

2025. 3. 26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사 말씀

2025. 3. 26. (수) 15:00
D-camp 컨퍼런스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매 분기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시는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4년차에 접어들어
열 번째 모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올해 '중점분야 136조원+@' 공급계획 등
정책금융을 부처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펀드인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선제적으로 출시한 데 이어(제3회 정금협)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3.5조원 프로그램 마련(제7회),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제6회, 제8회) 등
정책금융이 맞이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시는 사업부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협의회가 발전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I. 금일 정책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논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책금융 공급현황 점검

첫째, 정책금융 공급현황 점검입니다.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신속집행을 추진 중이고,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상반기 중 자금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3월 21일까지 총 75.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년대비 13%(8.7조원)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7일부터 한 주 동안에만 13조원 이상의
자금이 집행되는 등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됨에 따라
자금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조기집행에
협조해주신 정책금융기관 및 현장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반도체생태계펀드 및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방안

둘째,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방안입니다.

<반도체생태계펀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산은과 반도체기업의 출자로 운영되었던 반도체 생태계펀드가 올해부터는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하였습니다.

* '24.6.26일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민간중심의 반도체펀드(3,000억원)을 재정이 투입된 펀드(3년간 +8,000억원, 기존펀드까지 총 1.1조원)로 확대

기존 펀드에 더해 올해 추가로 조성될 1,200억원의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의 기술투자과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될 계획입니다.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공부문에서 2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당초계획] 정부 300억원 + 산은 300억원 + 민간자금 모집필요 600억원
[변경] 정부 300억원 + 산은 350억원 + 기업은행 100억원 + 성장사다리 100억원
+ 민간자금 모집필요 350억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자에 협조하여 주신 기업은행과 특허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서 모집해야 할 자금부담이 적어진만큼 신속히 조성·투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원전산업성장펀드>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투자펀드를 신설하였습니다.

* 정부 350억원 + 산업은행 50억원 + 한국수력원자력 300억원 + 민간자금 300억원 유치

아직 생태계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장이 지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만큼 재정과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한수원 등은 24조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계약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24.7월)

III. 맺음말

금일은 서면안건으로 각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품목별로 기관별 정책금융 공급 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정책 중심의 45대 중점분야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하여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금융의 질적 개선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